



성경을 효율적으로 읽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위로 받고 힘을 얻으려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희로애락의 감정에 툭 부러지는 맞춤 성경을 골라달라니, 잠시 난감했습니다. 성경읽기는 하느님의 뜻을 캐어 신앙의 길을 찾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대할 때에 하느님께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널리 펼치시고자 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난해한 삶 안에서 당신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귀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읽기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일 영양제와 비타민을 복용하듯 성경읽기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예레 15,16)와 에제키엘(에제 3,1)과 사도요한(묵시 10,9)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성경을 눈으로 읽어 터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잘 씹고 소화시켜 생활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이어 읽는 통독을 최고로 칩니다. 가끔 심란하고 지칠 때엔 시편이나 지혜서에서 주님의 평화를 찾습니다.

『소곤소곤 이런 질문해도 되나요?』, p.112~113,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하느님께 희망을 둔 이들의 행복

(시편 146,1-10)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3장 “온 세상 다스리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46,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2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한.
나의 하느님께 찬미 노래 하리라, 내가 있는 한.
- 3 너희는 제후들을 믿지 마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을.
- 4 그 일이 나가면 흠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도 사라진다.

- 5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
- 6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 7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 주시고
- 8 주님께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 9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꺾어 버리신다.
- 10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피알시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고는 이제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맛집 거리를 가보면 온갖 방송에 출현한 이력이 붙은 간판이 즐비하고, ‘원조’라는 말이 붙어 있는 간판이 많아서 어느 집이 진짜 원조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입사원서를 쓸 때, 자기 소개서를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광고들 속에서 정작 자신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낯선 자신을 마주할 때, 나를 치장하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참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3장 “온 세상 다스리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랑을 나누는 만나의 집 공동체 |

- 장승포본당 구역분과장 박선옥 요세파 -

장승포본당은 1953년 설립되어 올해로 65주년을 맞이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장승포 본당이 있는 거제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뻗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지세포에는 윤봉문 요셉 순교 성지가 있어서 많은 순례객이 방문합니다. 조선소가 있어 인구의 절반은 조선업에 종사하는데, 저희 성당도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비교적 젊은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임하신 신부님께서는 소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조선소의 어려움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타지역 전출이 많아지자 소공동체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6개 구역 18개 반으로 개편하셨습니다. 또한 월례회 때에는 반구역장을 대상으로 소공동체 교육을 하십니다. 토요일 오전이며 각 구역별로 본당 청소를 하고, 교중미사 때는 이름표를 패용하여 자신의 소공동체가 어딘지 확인하고 평화의 인사 중 세례명을 불러주며 서로 인사를 합니다.

주일 낮 미사 후에는 구역별 식사를 통해 얼굴을 익히고 친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제외한 주일미사 후 모든 신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만나의 집을 운영해 온 지도 20년이 됩니다. 반구역별로 주일미사 전 날 미리 식재료를 준비하고 주일 당일에는 배식봉사와 설거지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운영되는 만나의 집은 본당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 교우들 간의 친교와 결속을 다지는 소통의 자리라는 것을 공감하기에 20년째 꾸준히 운영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나의 집 운영이 잘 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본당 구역분과장과 만나의 집을 2년간 맡아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 했던 저에게 뜻하지 않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든 수술과 여러 치료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고, 다시 구역분과장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고 또 청합니다. 아울러 장승포 본당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당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충실히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